

# 학교폭력 보도의 문제점과 사생활 보호에 대한 주요 쟁점 논의

## 언론중재위원회, 사법연수원생 모의 토론회 개최

● 언론중재위원회는 1월 17일 사법연수원생 실무수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보도의 문제점과 사생활의 보호”라는 주제로 모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법연수원생이 패널로 참가해 피해자와 언론사의 입장에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밝히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김경돈 연수생은 보충 토론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무서운 것이 언론보도”라며 “언론에서는 학교폭력 보도시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공정성에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환 연수생은 “언론의 자유와 청소년 인격권 보호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익명보도 및 반론권 보장과 더불어 학교폭력 자체의 선정적인 보도 대신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심층적 비판보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 서울 제2중재부 장진훈 중재부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해당 조정 사례는 사안은 간단하지만 다루어야 할 쟁점이 많았는데, 판례 등을 집중적으로 잘 요약했다”며 사안의 공익성, 피해자의 특징, 보도의 긴급성 유무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논평했다.

● 서울신문 임태순 논설위원은 “사회부 기사는 일면식도 없는 일반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분쟁에 휘말리기 쉬운 경향이 있어, 기사 작성시 항상 반대편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노력한다”며 언론 현장에서 느낀 생생한 경험담을 전했다.

● 언론중재위원회 권성 위원장은 토론회에 참석한 후 “실제 조정·중재 사례를 바탕으로 한 토론회 프로그램은 언론중재위원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연수프로그램”이라며, “현장 중심의 이번 실무수습이 향후 법조인으로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고 평가했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사법연수원생, 장진훈 중재부장, 임태순 논설위원을 비롯하여 사무처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재편 |

언론중재위원회는 2013. 1. 1.자로 연구본부를 교육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교육팀을 연속교육팀과 수시교육팀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교육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언론환경 변화에 따른 분쟁의 증가 및 양상의 복잡화로 인해 언론분쟁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을 설립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 따른 것이다. 신설된 연속교육팀은 언론조정·중재 전문가 과정, 교사직무연수, 법무수습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수시교육팀은 일반인,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언론분쟁예방 및 구제 교육과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